

도심에 ‘열린 미술관’…문화가 일상으로 흐른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5>

日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구도심 내 핵심기능을 맡고 있는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경.



건물 외벽을 대형 유리 122장으로 둘러 안과 밖 구분을 없애면서 내부 어디서나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다.



가나자와는 관람객이 작품을 최대한 편안히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관 공간을 꾸며 곳곳에 의자, 소파, 작은 광장 등에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관람객을 볼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도시 가나자와를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다. 구도심 내 초·중학교 부지에 건립된 이 미술관은 장엄하고 웅장한 기존의 미술관과는 전혀 다른 설계와 이미지로 2004년 10월 문을 열었으며 도심 재생은 물론 미술의 ‘일반화’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관은 설계를 맡은 SANAA 건축사무소와 미술관 스텝들이 4년 간 공동 작업으로 완성됐으며 ▲새로운 문화 창조 ▲거리 복작거림 재생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라는 3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했다.

미술관과 커뮤니티센터 융합하는 형태로 바로 인근에 일본 전통정원 겐로쿠엔, 시립·현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이 있어 구도심을 ‘문화’로 한 데 엮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소통’이다. 미술관 건물 밖에도 형형색색의 유리로 만들어져 세상을 각기 다른 색채로 볼 수 있는 작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미술관 안과 밖에서 상호 바라볼 수 있도록 건물 외벽을 대형 유리 122장으로 둘러쌌다. 내부 천장 높이도 4~12m에 달하고 천장 일부도 유리로 해 실내 어디서든 햇빛을 맞이할 수 있어 밝고 개방적이다. 출입구를 4곳이나 만들어 도심 어디에서도 들고 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쇼핑을 나온 편한 차림의 주부들이 다수 눈에 띄었던 것도 이러한 독특한 건물구조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듯했다.

미술관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가교류형 미술관 ▲지역전통을 미래와 연계해 세계에 열린 미

투명 유리벽에 출입구만 4곳 “마음 편히 보라” 손짓

작품 이해 쉽고 밤 10시까지 운영…年 150만명 방문

술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이라는 3가지 기조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지역전통공예품 전시를 빈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초·중·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미술관에 초대해 미술관이나 전시회의 감상 방법, 매너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지역 초·중·고학생 4학년 4500명 정도가 미술관을 찾았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회, 작가 토크쇼 등 전시, 관련된 음악이나 연극 모임 주선, 시민들을 위한 베틀시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소규모 기차 설치 등이 있다.

개관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일요일 휴관하는 유료존은 제외)로 연간 입장객 수는 150만명에 이른다. 직장인들이 업무를 마친 뒤에도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개관 초기 130만명에서 20만명이 증가하는 등 입장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 지역미술관 입장객이 5~6만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30배 이상이다.

또 미술관 컨셉이 명확하고 미술작품의 이해를 쉽게 했으며, 가나자와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가 어울려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것이 입장객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심 중심가라는 위치 우

수성, 참신하고 밝은 건축물 등도 외지인들까지 불러모으는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 신축에는 모두 200억엔(건축비 113억엔)이 투입됐으며 직원 36명의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 운영비로 매년 7억6000만엔을 쓰고 있다. 미술관 수입은 입장료 및 갤러리 임대료 2억 8000만엔, 판매수익 5000만엔 정도로 부족한 4억 3000만엔 정도는 가나자와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14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높이나 면적을 모두 다르게 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맞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었다.

사쿠마 사토루(佐久間 悟) 미술관 총무과장은 “20세기 모더니즘이 3가지 M(사람·돈·물질주의)으로 대변된다면 이제는 3가지 C(의식·지식·집약·공생)가 이를 대체해야하는 데 21세기 미술관은 이를 잘 녹여낸 하나의 작품”이라며 “지난달에는 프랑스 루브르미술관과 합동 전시를 가졌으며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시·기획은 물론 건축 디자인을 보기 위해 외국인 방문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가나자와는

가나자와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한 도시다. 금박 등 전통공예의 도시, 역사전통도시, 문화도시인 가나자와는 시청 내에 추진실을 만든 지 1년이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유네스코로부터 창조도시로 인정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함께 일본 전통정원 겐로쿠엔, 전국 금박공예품의 90% 생산 등으로 이미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도시로 지정됐으며, 그 후 1년만인 2008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 차원에서는 문화계승과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 계승자 육성 ▲신문화의 창조거점 조성 ▲가나자와 창조도시 추진프로그램 선정 및 실천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가나자와 전통공예품은 22개 종류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간국보)들이 컴퓨터 주변기기 등 틈새시장을 노려 산업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공예품을 다루는 점포가 900곳 종사자 3000명으로 시내 점포의 약 20%, 종사자 수의 6%를 차지하고 있다.

가나자와공예 어린이양성소도 2008년 개설하고 2010년부터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공예와 관련된 여행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가나자와시 기획조정과 미즈요시 겐이치씨는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한 후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 전체 예산 1500억엔 중 문화 관련 예산은 45억엔 정도로 전국 평균 1%보다 높은 3~6%에 달하고

역사 건축물·전통정원 겐로쿠엔 등 옛 면 거직

추진 1년만에 2008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인근의 현립 역사박물관.

있으며 도시 전체적으로 상업시설은 부족해 불편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객사랑 바다사랑 수협

제16회 바다의날 기념

2011년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

| 일 시 | 2011년 5월 27일(금)

| 장 소 | 전남 고흥군 녹동항 내(쌍충사 앞 물양장)

| 주 최 | 수협중앙회

| 주 관 | 고흥군수협

■ 주요행사

- 수협중앙회장배 불가사리 퇴치대회
- 어업인 안전조업 및 해양오염방지사진 홍보전
- 민속공연(북 놀음)
- 어항청소 및 수중정화작업
- 어업인 노래자랑
- 희망! 푸른바다가꾸기 염원식
- 수산종묘방류(넙치)

고흥군수협에서 판매하는 우리수산물

생산된 모든 제품은 원초 매입부터 가공판매까지 고흥군수협에서 직접하고 있으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종합 1호



멸치 1kg, 새우 300g, 김밥용구운김 5봉, 구운맛 들김 3봉, 김자반복을 2봉, 건다시마 200g 1봉, 다시마완 1봉, 원장국거리미역 50g 2봉, 맛들김 1속, 건미역 40g 1봉, 냉채용미역 50g 2봉

종합 2호



멸치 500g, 새우 300g, 맛들김 1속, 김밥용구운김 5봉, 구운맛들김 3봉, 김자반복을 1봉, 건다시마 200g 1봉, 다시마완 350g 1봉, 건미역 40g 1봉, 냉채용미역 50g 1봉, 원장국거리미역 50g 1봉

종합 3호



멸치 300g, 맛들김 1속, 김밥용구운김 5봉, 구운맛들김 5봉, 건미역 40g 2봉, 냉채용미역 50g 2봉, 잘게썬미역 80g 2봉, 김자반복을 1봉

종합 4호



맛들김 1속, 구운맛들김 3봉, 김자반복을 2봉, 건미역 40g 1봉, 냉채용미역 50g 1봉, 건다시마 200g 1봉, 원장국거리미역 50g 1봉



한이름 1호
멸치 300g, 새우 300g, 구운맛들김 7봉
한이름 2호
맛들김 1속, 파래김 1속
선어(서대, 양태) 1호
선어(서대, 양태) 2호

고흥군수협연합동조합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09-21
전화. 061-840-3100 FAX. 840-3117
http://www.suhyp.net